

# 플라톤 『국가』에서 철학자의 순수한 즐거움

구교선\*

## 【요약】

본고는 순수하고 진실된 즐거움을 경험하는 정의로운 삶, 즉 철학자의 삶이 부정의한 삶 보다 낫다는 『국가』 9권에 실린 소크라테스의 논증을 탐구한다. 특별히 본고는 본 논증의 요지 중 하나인 철학자의 즐거움이 순수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고 왜 순수한 즐거움을 주로 경험하는 철학자의 삶이 다른 이들의 삶 보다 더 행복한 삶인가를 밝히는데 집중한다. 이 작업을 위해 먼저 본고는 이 논증의 전반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즐거움은 혼의 평온인 즐거움의 그침과 구별되며, 즐거움은 순수한 즐거움과 그렇지 않은 즐거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본고는 본 논증의 전반부에 바로 이어져 등장하는 위상 비유를 자세히 탐구하여 고통이 이에 앞서지도 않고 뒤따르지도 않으며 공존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일부 순수한 즐거움의 특성일 수는 있으나 소크라테스가 본 논증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종류의 순수한 즐거움의 개념을 규정하는 특성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런 견지에서 본고는 본 논증의 후반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철학자의 즐거움은 이와 연관된 욕구가 온전히 충족되었다는 의미에서, 바꿔 말해 고통이 뒤따르지 않는 즐거움이라는 의미에서 순수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어서 본고는 철학자가 철학을 하는 와중에 누리는 즐거움 뿐 아니라 이상국을 통치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즐거움 역시 이런 의미에서 순수하다는 걸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순수한 즐거움을 누리는 철학자만이 욕구를 온전히 충족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따라서 그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한다.

【주제어】 플라톤, 『국가』, 철학자, 즐거움, 순수한 즐거움

---

\* King's College London 철학박사

\*\*본고는 필자의 King's College London 박사학위 논문 *Plato on Rational Pleasure and Two Sorts of the Good Life V.2*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I. 서론

정의로운 자는 부정한의 자 보다 더 행복하다는 주장이 플라톤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라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국가』 9권에서 소크라테스는 정의로운 자, 곧 철학자(1)가 가장 행복한 자라는 걸 밝히는 세 가지 증명을 제시한다. 이 셋 중 마지막 증명을 소크라테스는 “가장 크고 가장 결정적인 것”<sup>2)</sup> καίτοι τοῦτ' ἂν εἴη μέγιστόν τε καὶ κυριώτατον τῶν πτωμάτων (583b7)이라 부른다. 따라서 “현명한 자의 즐거움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은 온전히 진실된 것도 아니며, 순수한 것도 아니고, 환영적幻景的인 것” οὐδὲ παναληθῆς ἐστὶν ἢ τῶν ἄλλων ἡδονὴ πλὴν τῆς τοῦ φρονίμου οὐδὲ καθαρὰ, ἀλλ' ἔσκαυρα ἀφημένη τις (583b3-5)이라 주장하는 이 증명을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변호하는 핵심 논변이라 불러 마땅하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자의 삶이야말로 행복하다는 주장이 본 대화편 내에서 갖는 무게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이 증명을 본 대화편의 절정 중 하나라 일컬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의로운 자의 삶을 옹호하는 세 증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이 증명은 놀랍게도 학자들에 의해 지금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이 논변이 『국가』 내에서 갖는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연구의 부족은 곧 본 대화편의 알짜를 우리가 아직 취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할지 모른다. 게다가 본 증명을 탐구한 대부분의 연구가 내리는 이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비판적이다.<sup>3)</sup> 만약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가 타당하다면, 이 증명을 요체로

1) 오직 철학자만이 진실된 의미에서 정의로운 자라고 보는 견해는 Irwin (1995), pp. 229-235과 Bobonich (2002), pp. 41-88를 참조하라. 이 견해가 정의로운 자의 자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시킨다는 비판은 Kamtekar (2004), p.131-170와 Vasiliou (2008), pp. 254-267를 보라.

2) 본고의 『국가』 번역은 박종현 (2005)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수정을 가했다.

삼고 있는 본 대화편의 기획 전체가 성공적인가에 대해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물론 최근 몇몇 학자들은 정의로운 자의 삶을 찬양하는 세 번째 증명에 대한 주목할 만한 자비로운 해석들을 내놓았다.<sup>4)</sup>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지금껏 어떤 연구자도 철학자의 즐거움을 제외한 다른 즐거움은 순수하지 않다는 소크라테스의 지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sup>5)</sup> 앞서 소개했듯이 이 증명의 핵심적 주장이 오직 철학자의 즐거움만이 온전히 진실 되고 순수하다는 데에 있는 한, 이것은 곧 지금껏 어떤 학자도 이 증명의 알맹이를 꺼내 보여주지 못했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필자는 본고에서 철학자의 즐거움이 순수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런 작업을 위해 필자는 정의로운 삶을 옹호하는 세 번째 논증의 전반부(583b-584c)를 II장에서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즐거움은 일종의 혼의 평온과 구별된다는 점과 즐거움은 순수한 즐거움과 그렇지 않은 즐거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특별히 본 논증의 전반부는 순수한 즐거움을 고통에 뒤따르지도 않고 고통이 뒤따르지도 않는 종류의 즐거움으로 그렸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다. 다음으로 III장에서 필자는 본 논증의 전반부에 이어지는 위상位相 비유topological

3) Murphy (1951), p. 207; Cross and Woosley (1964), pp. 266-269; Annas (1981), pp. 306-314; Gosling and Taylor (1982), pp. 97-128; Taylor (1998), pp. 49-76; Frede (1992), pp. 435-437; Gibbs (2001); Rosen (2005), pp. 336-344; Wolfsdorf (2013a); Wolfsdorf (2013b), pp. 63-74.

4) Russell (2005), pp. 127-135; Warren (2011); Erginel (2011a); Erginel (2011b); Warren (2014), pp.21-51.

5) 많은 연구자들은 본 증명에서 소크라테스가 ‘참됨’과 ‘순수함’을 상호 교환 가능한 뜻으로 사용한다고 본다(예를 들어 Frede (1985), pp. 151-180; 이종환 (2019), p. 347).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텍스트 상의 근거는 없다(Erginel (2011b), pp. 495-496). 따라서 필자는 혹 참된 즐거움과 순수한 즐거움의 그 외연이 겹치더라도 둘은 즐거움을 판정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직 철학자의 즐거움만이 온전히 참되다는 주장이 어떻게 철학자의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걸 뒷받침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속 연구를 통해 밝히겠다.

analogy (584c-585a)를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고통이 이에 앞서지도 않고 또 뒤따르지도 않는다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본 논증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종류의 순수한 즐거움의 개념을 규정하는 특성은 아니며 그 특성이 무엇인가는 본 논증의 후반부를 살펴보아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이다. IV장에서 필자는 즐거움의 대상 및 이와 관련되어 충족되어지는 것의 존재론적 지위를 기준으로 즐거움을 분석하는 본 논증의 후반부(585a-587c)를 탐구할 것이다. 이 탐구를 통해 우리는 철학자의 즐거움은 이와 연관된 욕구가 온전히 충족되었다는 의미에서, 바꿔 말해 고통이 뒤따르지 않는 즐거움이라는 의미에서 순수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은 철학자가 철학에 매진하는 자로서 뿐 아니라 이상국의 통치자로서 누리는 여러 종류의 즐거움들을 살펴 볼 때 확증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순수한 즐거움을 누리는 철학자만이 자신의 욕구를 온전히 충족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따라서 그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 II. 순수한 즐거움, 고통의 그침, 고통으로부터 벗어남

정의로운 자의 삶이 부정의한 자의 삶 보다 더 행복하다는 걸 주장하는 세 번째 증명을 소크라테스는 고통λύπη와 즐거움ήδονη의 구별로 시작 한다(583c3-4). 이어서 그는 두 극단의 상태 중간에 있는 상태를 혼의 일종의 평온ήσυχια이라 부른다(583c5-9). 그런데 환자들은 건강한 것보다 더 즐거운 건 없다고 말하고 또 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 그치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말하는 걸 볼 때 이 평온의 상태가 때때로 즐거운 상태가 된다는 걸 γίγνεσθαι 알 수 있다(583c10-d11). 단지 고통이 그친 상태가 즐거움보다 양적으로 더 즐겁다는 건 개념적으로 모순되니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의 이러한 진술은 아마도 그들이 볼 때 질적으로 가장 즐거움다운 상태, 바꿔 말해 즐거움의 전형典型이 바로 고통이 그친 상태라는 뜻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혼의 일종의 평온의 상태가 그 자체로 즐거운 상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 주장이 옳다면 즐거움과 고통이라는 단 두 상태만이 존재하게 되고 이 둘과 구별되는 제3의 상태를 우리는 상정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는 어떤 이가 기뻐하기를 멈추게 될 때 즐거움에서 벗어난 평온이 괴로워질 거라는 점을 지적하여 평온이 그 자체로 즐거움도 아니며 고통도 아니라는 점을 보인다(583e1-3).<sup>6)</sup> 건강한 상태, 곧 고통이 멈춘 상태가 그 자체로 즐거움이라고 환자가 주장하듯이, 건강한 자는 즐거움의 멈춤이 그 자체로 고통이라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환자들과 심각한 고통에 처한 이들이 내놓는 상술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한 우리는 평온이 때로는 그 자체로 즐거움이고 때로는 그 자체로 고통이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에 봉착하게 된다.<sup>7)</sup> 이는 때로는 즐거워 보이고 때로는 괴로워 보이는 상태는 그 자체로 즐거운 상태 및 그 자체로 괴로운 상태와는 구별되는 상태라는 걸 가리킨다.<sup>8)</sup> 결국 비록 평온이 때로는 즐거워 보이고 또 때로는 괴로워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 자체로 즐거운 상태와는 구별되며 그 자체로 괴로운 상태와도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6) 특정한 조건 하의 사람이 자신에게는 평온이 즐겁다고 말하는 것이 곧 그 조건 하에 있는 자가 이 평온이 그 자체로 즐겁다는 걸 주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환자에게 평온이 즐겁다는 사실로부터 평온이 때로는 즐거움이라는 주장을 이끌어 내는 소크라테스는 ‘술어적 서술predication’과 ‘정체성identity’을 혼동했다는 울프스도르프의 비판(Wolfsdorf (2013b), p. 113)을 피할 수 없다.

7) C.f. 버틀러는  $x$ 도  $y$ 도 아닌  $z$ 가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x$ 이고 때로는  $y$ 일 수 있고, 이것은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혼의 평온의 상태가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건 그 자체로 아무런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입을 여지를 열어둔다(Butler (1999), p. 291). 즉 키가 177cm인 김희철이 신장이 207cm인 서장훈과 비교했을 때는 작지만 163cm의 신장을 가진 이수근과 비교했을 때는 큰 것처럼 평온이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건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가능성을 그는 남겨둔다. 다만 그는 이 가능성이 위상 비유에 이르러서 기각 된다고 본다(Butler (1999), pp. 296-297.).

8) Warren (2011), p. 121.

이런 맥락에서 소크라테스는 즐거움, 괴로움, 평온이라는 세 가지 구별되는 상태의 특성을 간략히 정리한다. 그는 먼저 혼에 있어 즐겁게 되거나 괴롭게 되는 것은 양쪽 다 일종의 운동κίνησις이라는 걸 지적 한다(583e9-11). 덧붙여 그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상태를 평온이라 말한다(584a1-3). 즉 즐거움과 고통을 특징짓는 운동을 결여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평온이라고 그는 규정한다. 결론적으로 즐거운 상태와 비교하는지 혹은 괴로운 상태와 비교하는지에 따라 평온이 때로는 즐겁게 또 때로는 괴롭게 달리 나타날 수 있지만φαίναται 이 상태는 즐거움이나 고통과 구별된다고 그는 명토 박는다(584a4-8).

즐거움과 평온을 구별 짓는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논의는 한 인간이 자신이 즐겁다고 느낀다면 그는 지금 즐거운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간과했다는 거센 비판을 지금껏 술한 학자들로부터 받아왔다.<sup>9)</sup> 하지만 여기에서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는 바는 만약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곧 즐거움을 경험한다는 걸 의미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즐거운 상태와 때로는 즐겁다는 느낌을 주는 상태인 평온을 구별 지을 수 없고 따라서 즐겁다는 느낌이 즐거움을 경험한다는 것의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sup>10)</sup> 다시 말해 그는 여기에서 즐거움을 그에 대한 판단이 틀릴 수 없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한정 짓는 입장, 즉 스스로 즐겁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해에 의문을 제기하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하여 즐거움이라 부를 수 있는 혼의 상태의 범위를 더욱 좁혀갈 필요가 있다는 걸 보이는 중이다.<sup>11)</sup> 따라서 즐거움이 순수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소크라테스가 현재

9) Grote (1875), p. 602; Murphy (1951), pp. 212-213; Urmson (1985), p. 213; Rosen (2005), p. 337. 즐겁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즐거움을 경험하는 충분조건이라는 입장은 현대 분석철학자들의 저술에서도 자주 발견 된다(예를 들어 Penelhum (1964), p. 86).

10) C.f. 머피는 소크라테스가 즐거움을 느끼는 일이 곧 즐거움을 경험하는 일이라는 걸 부인하지 않는다고 주장 한다(Murphy (1951), pp. 212-213).

11) Erginel (2006), p. 450.

염두에 두고 있는 순수한 즐거움이 단지 순수한 즐거운 느낌 정도를 가리키는 건 아니어야 한다.

하지만 고통과의 비교 없이 그 자체로 즐겁다고 간주될 수 있는 구별되는 상태, 곧 그 자체로 즐거운 상태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소크라테스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가 즐거움, 고통, 그리고 평온이라는 삼분법을 받아들이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는 즐거움 일반이 고통의 그침 *παῦλα λύπη*ς을 본성으로 삼는다고 *πεφυκένα* 오해하는 걸 막고자 (584a12-b2), 혼의 평온과 구별되는 고통이 선행하지도 않고 고통이 뒤따르지도 않는 종류의 즐거움의 예로 후각적 즐거움을 들고 이 즐거움을 순수하다고 칭한다(584b4-b7). 어떤 고통에 이어서 후각적 즐거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물론 있겠지만, 어떤 고통도 선행하지 않고 또 뒤따르지 않으며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후각적 즐거움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고는 한다. 예컨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전해지는 향기에 불현듯 우리는 선행하는 어떤 고통도 없고 뒤따르는 어떤 고통도 없는 종류의 즐거움을 경험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고통과의 비교도 없이 그 자체로 즐거운 상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 소크라테스는 순수한 즐거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남 *ἀπαλλαγῆ*(584b9)을 구별 짓는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남을 순수한 즐거움과는 다른 종류의 즐거움으로 규정하는 이 논의를 통해 우리는 순수한 즐거움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보다 나아간 이해를 얻을 수 있다.<sup>12)</sup> 소크라테스는 먼저 대부분의 육체적 즐거움, 즉 “육신을 통해 혼에 미치는 이른바 즐거움

12) 필자와는 달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고통의 그침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남을 같은 것으로 본다. 필자의 확인에 한에서 고통의 그침과 고통으로부터의 벗어남을 구별 지은 유일한 학자는 에르기넬이다. 다만 필자와 달리 그는 육체로부터 혼에 미치는 일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남의 대표적 예로 제시된 반면 육체를 고통의 그침에서 우리는 어떠한 운동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술한 구별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라 주장 한다(Erginel (2011b), p. 291). 하지만 육체를 통해 혼에 미치는 운동은 즐거움을 규정하는 운동과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일 가능성이 열려 있고, 따라서 필자는 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584c4-7) 가운데 대부분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남의 첫 번째 예시로 든다. 육체적 즐거움의 대표적 예가 먹고 마시는 즐거움(585b)이라는 걸 생각하면 고통으로부터의 벗어남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즐거움과 고통이 공존하는 상태인 고통으로부터 즐거움으로 이행해가는 일종의 과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허기가 채워진 상태라는 일종의 평온은 즐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배고픔의 고통이 점점 감소하는 취식의 과정을 통해서만 반드시 즐거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먹는 즐거움에는 고통이 선행하며 또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사람이란 아무리 먹어도 곧 다시 허기가 지기 마련이니 이 즐거움에는 반드시 배고픔의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윗 문단에서 논한 후각적 즐거움에 대비되는 종류의 즐거움의 대표적 예인 먹는 즐거움은 고통에 뒤따르고 고통이 이와 공존하며 또 고통이 이에 뒤따른다. 결론적으로 순수한 즐거움과 짝을 이루는 순수하지 않은 즐거움의 한 종류는 고통과 공존할 뿐 아니라 선행하는 고통 및 뒤따르는 고통도 갖는 종류의 즐거움이라 짐작 할 수 있다.

순수하지 않은 즐거움의 두 번째 예로 소크라테스는 미래에 일어날 즐거움을 예기豫期하는 데서 비롯되는 앞선 즐거움 *αἰ πρό μελλόντων τούτων ἐκ προσδοκίας γιγνόμεναι προη-σθήσεις τε καὶ προλυπήσεις* (584c7-8)을 제시한다. 물론 모든 예기의 즐거움이 이에 선행하는 고통을 갖는 건 아닐 것이고, 따라서 혹자는 이 점이 그의 논변을 약화시킨다고 볼지 모른다.<sup>13)</sup>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모든 육체적 즐거움이 아닌 대부분의 육체적 즐거움이 순수하지 않은 종류의 즐거움이라고 지적했다는 걸 고려한다면 예기의 즐거움을 순수하지 않은 즐거움의 예로 언급할 때도 그가 모든 종류의 예기의 즐거움이 순수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볼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 후각적 즐거움 가운데 일부가 고통에 뒤따르지도 않고 또 고통이 이에 뒤따르지도 않는다는

13) Gosling and Taylor (1982), p. 116.

점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순수한 즐거움이 존재한다는 걸 보이기 족하듯이, 예기의 즐거움 가운데 일부가 고통으로부터의 벗어남이고 따라서 순수하지 않다는 걸 보인다면 그의 의도는 충분히 관철된다.<sup>14)</sup>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아마도 소크라테스가 염두에 두는 예기의 즐거움의 한 예는 배고픔을 느끼는 가운데 미래에 누리게 될 햄버거를 먹는 즐거움을 예기하며 경험하는 즐거움과 같은 경우가 될 법하다. 바퀴 말해 배고픔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미래에 누릴 즐거움을 떠올리는 데로 주의注意를 옮기는 방식으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그가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기의 즐거움의 한 예시라 할만하다.<sup>15)</sup> 만약 이런 해석이 옳다면 그가 지금 예기의 즐거움으로 고려에 두고 있는 종류의 즐거움은 대부분의 육체적 즐거움과 마찬가지로 고통에 뒤따르고 또 고통이 뒤따르며 동시에 고통이 공존하는 즐거움, 다시 말해 순수하지 않은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자. 혼의 평온인 고통의 그림은 특정한 조건에서 즐거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즐거움의 본질적 속성인 일종의 운동을 결여하고 있다. 혼에 있어서 일종의 운동인 즐거움은 고통으로부터의 벗어남인 순수하지 않은 즐거움과 순수한 즐거움의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시된 전자의 예들은 모두 고통이 선행하고 또 뒤따르며 동시에 공존하는 종류의 즐거움들이다. 반면 후자의 유일한 예로 제시된 후각적 즐거움은 고통이 선행하지도 않고 또 뒤따르지도 않으며 공존하지 않는 그 자체로 즐거운 상태이다.

14) 고통의 그림과 고통으로부터의 벗어남을 구별 짓지 않는 워렌은 여기에서 거론되는 예기의 즐거움은 583d3-4에서 언급되는 고통의 그림과 동종의 것이라고 본다(Warren (2011), pp. 129-130).

15) 에르기넬은 고통의 그림과 고통으로부터의 벗어남을 구별 지을 때 예기의 즐거움을 어떻게 후자의 예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Eiginel (2011a), pp. 290-292).

### Ⅲ. 위상 비유(584c-585a)에 대한 분석

II장에서 우리는 순수한 즐거움의 대표적 예인 후각적 즐거움은 고통이 선행하지도 않고 또 뒤따르지도 않는데다가 이것이 공존하지도 않는 즐거움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선행하는 고통이 없고, 뒤따르는 고통도 없으며, 공존하는 고통도 없다는 걸 순수한 즐거움을 규정하는 속성으로 제시한 적이 없다. 그러니 아직 우리는 모든 순수한 즐거움이 후각적 즐거움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고통과도 엮여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본 장에서 필자는 앞선 장에서 살펴본 논의에 바로 이어져 제시되는 위상 비유(584c-585a)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앞선 논의에서 즐거움과 관련해 제시되었던 핵심적 내용들을 재차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즐거움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으로 나아갈 토대를 얻게 된다. 일단 이 비유의 전반부를 살펴보자.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며 무얼 제일 닳았는지 자네는 아는가?” 내가 물었네.

“그게 뭐가요?” 그가 물었네.

“자연에 있어서 ἐν τῇ φύσει 윗부분 τὸ ἄνω, 아랫부분 τὸ κάτω, 그리고 중간부분 τὸ μέσον이 있다고 자네는 생각하는가?”

“저야 그렇게 생각하죠.”

“(1) 아랫부분에서 중간으로 이동된 사람은 자기가 위쪽으로 ἄνω 이동되었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것이라 자네는 생각하는가? (2) 그래서 중간에 멈추어 서게 되어, 자신이 어디에서 옮겨 오게 되었는지를 보게 된다면, 자신이 윗부분 아닌 다른 어떤 곳에 있다고 생각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3) 진실된 윗부분은 못 본 터이니 말일세.”

“맹세코, 그런 사람이 달리 생각하리라고는 저로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네.

“그러나 만약에 그가 되 옮겨지게 된다면, 그는 자신이 아래쪽으로 κάτω로 옮겨졌다고 생각할 것인데, 그는 사실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겠지?” 내가 물었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4)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그가 진실로 윗부분에 있는 것과 중간에 있는 것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게 아니겠는가?”

“분명합니다.”(584d3-e5)

본 비유는 자연에 있어서 위, 아래 그리고 중간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일로 시작 한다 (584d3-4). 다시 말해 이 비유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윗부분, 아랫부분, 그리고 중간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의미에서의 윗부분, 아랫부분, 그리고 중간부분을 다루고 있다.<sup>16)</sup> 따라서 이 비유가 즐거움, 고통, 그리고 평온과 가장 닮은 것으로 이 세 상태를 소개한다는 것(584d1)은 곧 소크라테스가 현재의 논의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즐거움, 고통, 그리고 평온은 다른 상태와 비교해서 즐겁거나 고통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에서 즐겁고, 고통스러우며, 평온한 상태라는 걸 가리킨다.

이어서 소크라테스는 두 가지의 서로 연결되지만 구별 가능한 경우들을 탐구한다. 먼저 (1)에서 소크라테스는 아랫부분에서 중간부분으로 이동된 사람은 자기가 위쪽으로  $\alpha\nu\omega$  이동되었다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적한다. 마치 고통으로부터 벗어남을 경험하는 이가 단지 자신이 일종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아랫부분에서 중간부분으로 이동된 사람이 그저 자신이 위쪽 방향으로 이동되었다고 믿는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지만 마치 고통으로부터 벗어남을 겪고 있는 자, 다시 말해 순수하지 않은 즐거움을 경험하는 자가 자신이 순수한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명백한 오해이듯이, 만약 아랫부분에서 중간부분으로 이동된 사람이 자신이 윗부분  $\tau\acute{o} \alpha\nu\omega$ 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여기로 이동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이다.

16) 워렌이 잘 지적했듯이 『파이돈』 109a-110a와 『티마이오스』 62c-63e에서 우리는 자연 속에 있는 절대적 위치에 대한 논의를 발견할 수 있다(Warren (2011), p. 131).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1)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남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sup>17)</sup>

(2)에서 소크라테스는 아랫부분에서 중간부분으로 옮겨져 이곳에 서있는 자가 자신이 윗부분에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다룬다. 마치 자신이 이전에 처해있던 고통을 현재의 평온과 비교할 때 평온이 즐거워 보이는 착각을 낳듯이, 중간부분을 윗부분으로 착각하는 이러한 오해는 자신이 이전에 있던 곳과 현재 있는 곳을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 점에서 (2)는 고통과의 비교에 의해 평온이 절대적으로 즐거워 보이는 경우, 곧 고통의 그침을 순수한 즐거움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비유하고 있다.<sup>18)</sup> 결국 (1)과 (2)를 통해 소크라테스는 즐거움, 평온, 고통이라는 세 가지 상태의 구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뿐 아니라 즐거운 느낌을 제공하지만 순수한 즐거움과는 구별되는 영혼의 두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본 비유의 전반부에서 소크라테스는 이전 논의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를 승인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즉 그는 아랫부분으로부터 위쪽으로 이동하는 운동을 윗부분에 이르는 운동으로 오해하거나 이 운동에 의해 도달한 중간부분을 윗부분으로 오해하는 일은 진실된 윗부분과 관련된 것에 대해 경험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을 (3)과 (4)에서 강조 한다. 그렇다면

17) 에르기넬은 (1)을 즐거움의 그침을 순수한 즐거움으로 오해한 경우로 이해한다 (Erginel (2011a), p. 291).

18) 버틀러는 희랍어 ἄνω와 κάτω를 일관되게 옮기지 않고 전자를 때로는 '위쪽으로'로 옮기고 때로는 '윗부분'으로 옮기며 후자를 때로는 '아래쪽으로'로 새기고 때로는 '아랫부분'으로 새기는 것은 두 희랍어 단어를 모호하게 해석하는 것이라 말한다. 더불어 그는 아래쪽에서의 이동을 고통과 연결 지을 경우 윗부분이 가리키는 순수한 즐거움도 결국은 윗부분에서 아래로의 이동이 뒤따르는 한 고통이 뒤따른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하나의 논문을 할애해 본 비유에서 전자는 오직 '윗부분'만을 뜻하고 후자는 오직 '아랫부분'만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Butler (2004)). 하지만 워렌이 올바르게 지적하듯이 본 비유에서 소크라테스는 위치 이동이라는 운동을 가리킬 때는 정관사 없는 형용사를 사용하고(예컨대 ἄνω) 자연에서의 위치를 가리킬 때는 정관사를 사용하여 명사형(예컨대 τὸ ἄνω)을 만들어 둘의 차이를 신중하게 표현하고 있다. 게다가 본 비유에서 우리는 모든 아래쪽에서의 이동이 곧 고통을 가리킨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Warren (2011), pp. 132-133 n.25).

여기에서 그는 순수하지 않은 즐거움을 순수한 즐거움으로 오해하거나 고통의 그침을 순수한 즐거움으로 오해하는 일은 순수한 즐거움에 대한 경험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라고 확언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오해를 가진 자들이 순수한 즐거움에 대해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주장은 실상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자들이 장미꽃 향기를 맡을 때 경험하는 순수한 즐거움조차 누려본 적이 정말로 없을까?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아마도 비유 속의 윗부분은 모든 종류의 순수한 즐거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종류의 순수한 즐거움을 가리키리라 추측 해볼 수 있다. 과연 이런 추측이 옳은지를 본 비유의 후반부를 통해 따져 보기로 하자.

“(a) 만일에 다른 많은 것에 대해 진실/진리ἀλήθεια은 경험하지 못했 으면서도, 건전하지 못한 의견들을 갖고 있다면, 또 즐거움과 고통 그리고 이것들의 중간 상태와 관련해서도 이런 처지에 있다면, 그래서 그들은 고통스러운 것으로 옮겨졌을 때, 그걸 진실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고통스러워하지만, (b) 그들이 고통에서 중간 상태로 옮겨졌을 때, 자신들이 채움πλήρωσις<sup>19)</sup>과 즐거움에 충분히 이른 것으로 생각한다면, 자네가 놀라겠는가? 마치 백색에 대한 무경험으로 인해서 회색을 흑색과 대비해 보듯, 마찬가지로 즐거움에 대한 무경험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고통 없는 상태와 대비해 보고서, 속게 된다면 말일세.”  
 “맹세코, 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크게 놀랄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584e6-585a7)

19) 희랍어 단어 πλήρωσις는 ‘채워진 상태’ 뿐 아니라 ‘채우는 과정’ 역시 뜻한다. 하지만 모든 즐거움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대한 분석(585a-b)의 연장선에서 설명되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에서 채움은 채우는 과정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보다 개연성 있다 (Erginel (2011b), p. 497; Warren (2014), p. 33). 다만 이 경우 철학자의 즐거움은 배움의 과정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에 한정되고, 만약 그렇다면 배움의 마지막 단계인 종음의 형상에 대한 배움에 이른 철학자의 삶은 더 이상 철학자 특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고, 따라서 그의 삶이 가장 즐거운 삶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염려가 많은 학자들 사이에 존재 한다(Gosling and Taylor (1982), pp.122-123; Frede (1993), p. 61 n.3). 이에 관련된 필자의 구체적인 입장은 별도의 논문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

먼저 (4)에서 진실로 윗부분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진실로 중간부분에 있는 것과 아랫부분에 있는 것 역시 경험하지 못한 자로 간주되었듯이, (a)에서는 이 자가 진실을 경험하지 못하고 즐거움과 고통 그리고 평온에 대해 오해를 하는 자와 유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얼핏 보기에 이것은 즐거움과 고통 그리고 평온에 대해 오해를 하는 자는 즐거움, 고통, 평온에 대해 진실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들린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 소크라테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일견 참된 즐거움, 참된 고통, 참된 평온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이 사람들은 평온이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남을 순수한 즐거움으로 오해한다는 걸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오해를 하는 자들이 평온이나 고통까지도 제대로 겪어 보지 않았다는 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sup>20)</sup> 따라서 어쩌면 소크라테스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진리ἀλήθεια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사람들은 이러한 오해를 하곤 한다는 것일지 모른다. 만약 이런 추측이 옳다면 본 비유에서 윗부분이 가리키는 특수한 종류의 순수한 즐거움은 진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 즐거움일 가능성이 열려 있다.

(b)에서 우리는 중간 상태에 이른 자가 자신이 즐거움과 채움에 충분히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오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중간 상태에 이른 것은 평온에 이르렀다는 것일 뿐 충분한 즐거움, 다시 말해 그 맥락상 순수한 즐거움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중간 상태에 이른 것을 즐거움에 충분히 이르렀다고 착각하는 이들과 자신이 채움에 충분히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자의 동일시로부터 우리는 일종의 채움과 즐거움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통이나 평온은 결여하고 있지만 즐거움은 갖고 있는

20) C.f. 에르기넬은 (4)에서 소크라테스가 진실로 윗부분에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진실로 중간부분에 있는 것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 표현하는 건 신중하지 못했다고 본다. 즉 이 자가 중간부분과 아랫부분에 있어 본 경험은 갖고 있으니 그를 (윗부분에 대한 무경험으로 인해) 중간부분 및 아랫부분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은 자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Erginel (2006), p. 467 n.46).

본질적 속성이 바로 이 채움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만약 이 추측이 옳다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남으로서의 순수하지 않은 즐거움은 그 어떤 채움과도 관련이 없고 따라서 순수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남이 관련하는 채움은 양적으로 충분한 종류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즐거움은 순수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오직 순수한 즐거움이 관련하는 채움만이 질적으로 충분한 종류의 것, 바꿔 말해 진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종류의 것이고 그래서 이 즐거움은 순수하지 않은 것일까? 물론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겠지만 순수한 즐거움이 특수한 종류의 채움을 본질적 속성으로 지닌다면 순수하지 않은 즐거움도 일종의 운동인 어떤 채움을 그 필요조건으로 가지리라고 보는 쪽이 순수하지 않은 즐거움은 어떠한 채움과도 연관을 맺지 않는다고 보는 쪽 보다는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왜냐하면 일종의 운동이라는 본질적 속성을 순수하지 않은 즐거움은 순수한 즐거움과 공유하고, 아마도 채움이 이 운동을 가리키는 걸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 본 비유의 윗부분이 가리키는 특수한 종류의 순수한 즐거움이 어떤 종류의 채움과 연관되는지와 (ii) 순수한 즐거움의 본질적 속성을 이루는 채움이 순수하지 않은 즐거움의 본질적 속성을 이루는 채움과 어떻게 다른지를 정의로운 자가 행복하다는 세 번째 증명의 이어질 후반부에서 살펴 볼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기대해볼 만하다.

#### IV. 철학자의 즐거움과 욕구의 온전한 충족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를 때 즐거움은 일종의 채워지는 과정을 본질적인 필요조건으로 갖는 걸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수립해온 순수한 즐거움과 순수하지 않은 즐거움의 차이는 이 채워지는 과정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채워지는 과정은 선행하는 비워져 있는 상태를 전제한다는 걸 고려하면, 소크라테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채움과 연관된 비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순수한 즐거움을 염두에 두고서 철학자의 즐거움이 순수하다고 말하는 가를 알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봄직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정의로운 자의 삶이 부정의한 자의 삶 보다 더 행복하다는 세 번째 논증의 후반부를 살펴보자.<sup>21)</sup>

일단 585a-c에서 소크라테스는 두 종류의 상이한 비움과 채움을 그려낸다. 먼저 배고픔과 갈증의 예를 통해 그는 육체의 비워진 상태를 언급한다. 즉 즐거움의 발생을 동반하는 종류의 채움 중 하나는 먹을 것이나 마실 것 등으로 채워지는 육체의 채움이다. 즐거움의 발생을 동반하는 또 다른 종류의 채움은 올바른 의견δόξα ἀληθῆς, ἀπιστήμη, 지성νοῦς 등으로 무지ἄγνοια와 어리석음ἀφροσύνη와 같은 혼의 비워진 상태를 채움이다. 이어서 소크라테스는 본성 상 적합한 것으로 채워지게 됨πληροῦσθαι은 즐거운 것이라 말한다(585d11). 이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 등이 육체를 채우는 본성 상 적합한 것이며 올바른 의견과 앎 등은 혼을 채우는 본성 상 적합한 것이라는 걸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모든 즐거움은 (i) 채워지는 것(예컨대 몸과 육체), (ii) 본성상 (i)을 채우는 것(예컨대 음식이나 앎), (iii) 채움 자체(예를 들어 취식이나 배움)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상술한 세 가지 요소를 기초로 즐거움을 분석할 때 우리는 즐거움이란 혼의 욕구의 충족을 그 본질적 구성요소로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585a-c를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올바른 의견이나 앎 등은 혼 전체를 채우는 무언가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국가』 4권을 통해 혼을 ‘이성적인 부분’, ‘기개적인 부분’, ‘욕구적인 부분’으로 나누었고 (436a-444a), 본고가 다루고 있는 증명 바로 전에 소개된 정의로운 자의 삶이

21) 본 논증의 후반부가 그 앞선 내용들에 기초하여서만 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필자와는 달리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세부적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본 논증의 두 부분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보는 데에서는 일치한다(예를 들어 Warren (2011); Wolfsdorf (2013b), pp. 63-73; 이종환 (2019), pp. 327-335).

부정의한 자의 삶 보다 더 행복하다는 두 번째 증명에서 그는 모든 욕구를 이 세 부분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라 주장했다는 점(580d)을 기억해야 한다. 즉 올바른 의견이나 앎이 일종의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들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본다면 이것들은 혼 전체를 채우는 무언가가 아니라 혼의 이성적인 부분이 갖고 있는 배움의 욕구(581b)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혼의 이성적인 부분의 욕구의 충족이 이 부분의 즐거움의 본질적 구성요소라고 보아야 한다. 더불어 그는 승리와 명예를 욕구하는 기개적인 부분(581b)이 이것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명예나 승리 또는 분노로 채워질 때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586c-d).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먹는 즐거움이 단지 육체의 생리적 채움에 관련된 즐거움이 아니라 먹는 것에 대한 욕구와 얽여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 즐거움은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혼의 욕구적인 부분에 위치하리라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이상 우리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비롯한 일군의 즐거움은 욕구적인 부분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즐거움이란 혼의 세 부분 중 하나에 속하는 욕구의 충족을 그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삼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평온과 즐거움을 가르치는 운동은 바로 혼의 채움, 다시 말해 욕구의 충족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즐거움은 일종의 혼의 채움인 욕구의 충족을 본질적 구성 요소로 삼는다. 그렇다면 위상 비유가 염두에 두고 있는 특수한 종류의 순수한 즐거움과 관련된 채움과 순수하지 않은 즐거움이 관련하는 채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더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더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을 채우는 일과 관련된 즐거움(예컨대 앎으로 혼을 채우는 일로부터 발생하는 즐거움)과 덜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덜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을 채우는 일과 관련된 즐거움(예컨대 밥으로 육체를 채우는 일로부터 발생하는 즐거움)을 구별 짓는다는 사실로 시선을 옮길 필요가 있다. 더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같으며 불멸하고

참된 것과 더 많이 관계한다는 점(585c2-6)을 볼 때, 즉 더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은 플라톤적 형상과 더 관련을 맺는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즐거움의 종류를 구별할 때 소크라테스가 채우는 것과 채워지는 것의 존재론적 지위를 그 잣대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존재론적 탐구를 통해 소크라테스가 도달하는 중간 지점은 즐거움을 더 참되고 더 실재하는 즐거움과 덜 참되고 덜 실재하는 즐거움 두 종류로 나누는 데에 그치는 듯하다(585d-e).<sup>22)</sup> 하지만 이 탐구의 과정을 조금 더 세밀히 살펴 볼 때 우리는 그가 본 논증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순수한 즐거움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전술한 바 있듯이 혼의 각 부분에는 특유의 즐거움이 있고 이 즐거움은 그 부분이 가진 욕구의 충족을 본질적 구성요소로 삼는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지금 펼치고 있는 존재론적 분석에 기초할 때 우리는 즐거움을 경험했다는 것이 곧 그 즐거움에 연관되는 욕구가 온전하게 충족되었다는 걸 가리키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이러한 존재론적 분석은 우리로 하여금 혼의 이성적인 부분의 욕구는 (거의) 온전하게 충족될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의 즐거움은 그러한 욕구의 (거의) 전적인 충족을 증언하지만, 인간은 혼의 다른 두 부분의 욕구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충족을 경험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두 부분의 즐거움은 욕구의 불완전한 충족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시는 즐거움의 예를 통해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 해보자.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한 자는 잠시 동안만 갈증이 해소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그는 다시 동일한 욕구인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욕구가 일시적으로만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은 욕구적인 부분의 욕구 일반은 그저 잠시 동안만 만족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보여준다. 이를 즐거움과

22) 『국가』의 형이상학을 술어적으로(predicatively) 해석하는 안나스는 ‘참됨’과 ‘실재함’을 언급하며 진행되는 즐거움에 관한 논의는 본 대화편이 내놓는 형이상학에 따라 설명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Annas (1981), pp. 312-313).

욕구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상술한 이해를 통해 설명해보면 언제나 같으며 불멸하고 참된 것과 덜 관계하는 덜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인 욕체는 채워진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존재론적으로 너무나 불안정하고 이 욕체를 채우는 물 또한 덜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욕체 안에 머물지 못하고 사멸하기에 해같은 잠시 동안의 일이고 또 다시 인간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더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과 연관되는 욕구는 최소한 덜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과 관련하는 욕구 보다는 더 오랫동안 충족되어 있는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sup>23)</sup> 특히 혼의 이성적인 부분은 사멸하지 않고 영원하며(611b-e) 형상도 그러하다는 걸 고려하면 특정한 형상에 대한 앎의 욕구는 거의 완전하게 충족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아름다움의 형상을 배우게 된 경우 이 자는 이 특정한 앎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앎에 대한 욕구를 다시 갖게 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 이 점은 형상을 지각하는 자인 철학자는 비상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486c-d)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따라서 혼의 이성적인 부분이 욕구하는 대상의 수와 종류가 무한하여 이 부분의 욕구 전체가 온전히 충족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도, 결코 지속적으로 충족되어 있을 수 없는 욕구적인 부분의 욕구들과는 달리 아름다움의 형상에 대한 앎의 욕구와 같이 이성적인 부분이 지니는 개별 욕구는 (거의) 온전히 충족 될 수 있다.<sup>24)</sup>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순수하지 않은 즐거움과 연관된 욕구는 오직

23) 울프스도르프는 참되게 채워진 종이컵은 온전한 세라믹컵과 동일한 정도로 내구성이 있다(durable)고 지적하면서 채우는 것이나 채워지는 것의 내구성은 채움의 참됨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Wolfsdorf (2013a), p. 72). 필자의 생각에 그는 참된 채움이 ‘지속적으로 채워져 있는가의 여부’와도 관련된다는 점을 간과했다.

24) 혼의 이성적인 부분 욕구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욕구가 온전히 충족 가능하다는 지점을 놓친 테일러는 사유를 계속하는 한 철학자의 혼의 이성적인 부분의 욕구 역시 반복적으로 생겨나고 따라서 욕구의 반복적인 생성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자들의 삶은 불행하다는 585e-586b의 진술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Taylor (1998), p. 69).

일시적으로만 충족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즐거움을 구성하는 본질적 속성이 채움이라면, 즐거움과 짝하는 고통을 구성하는 본질적 속성은 비워진 상태나 비워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를 순수하지 않은 즐거움에 적용하여 생각해보면 즐거움을 경험한 이후 이어서 고통을 겪는다면 이것은 즐거움에 이어 비워지는 과정을 거쳐 비워진 상태에 이르는 일이 일어났다는 걸 뜻한다. 만약 욕구가 온전히 충족되었다면 비워지는 과정이나 비워진 상태가 뒤따르지 않을 테니, 어떤 즐거움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은 곧 이 즐거움과 연관된 욕구가 온전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걸 가리킨다.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아서 이것의 짧은 만족에 이어 같은 욕구가 다시 일어나고 또 이 욕구가 충족될 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비워진 상태에 뒤따르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어떤 즐거움과 연관된 욕구가 온전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즐거움이 순수하지 않은 것이 되는 본질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즐거움과 관련된 욕구가 온전히 충족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 이와 동일한 욕구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즐거움이 순수하지 않은 즐거움과는 다른 종류의 즐거움인 순수한 즐거움이 되는 본질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생각하면 혼의 사멸하지 않고 영원한 부분의 욕구를 형상에 대한 (거의) 영원하고 (거의) 사멸하지 않는 앎으로 채울 때 발생하는 철학자의 즐거움은 욕구의 (거의) 온전한 충족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점에서 순수한 즐거움이라 부를 수 있다. 다시 말해 철학자가 특정한 형상에 대한 앎을 상실한 염려는 거의 없으니 이 형상의 앎에 대한 욕구는 채워진 이후 다시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고, 그러므로 이 욕구를 채우며 경험한 즐거움 이후에 다시 또 그와 동일한 욕구로부터 일어나는 고통을 겪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이 점에서 이 즐거움은 순수하다고 부를 수 있다. 바꿔 말해 비록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는 이 즐거움은 순수하지 않은 즐거움과 다를 바가 없지만, 순수하지 않은 즐거움이 이 빠져나오는 단계를 반복적으로 겪는다는 사실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것과는 달리 이 즐거움은 이러한 고통을 수반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 특징지어 지기에 순수하지 않은 즐거움과는 다른 종류의 즐거움인 순수한 즐거움으로 불러 마땅하다.

더 나아가 철학자가 철학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특유의 즐거움 뿐 아니라 그가 이상국을 통치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즐거움 역시도 이와 관련된 욕구의 온전한 충족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순수하다고 부를 수 있다.<sup>25)</sup> 먼저 철인왕은 자신이 통치하는 이상국의 현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갖는 일을 통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동굴의 비유에 따르면 동굴에 돌아온 철학자는 처음에는 동굴 속 그림자들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에 관해 다소간의 혼란을 겪는다(517d-e). 하지만 곧 그는 동굴 속 어둠에 익숙해진다.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사하고 있는 원래 대상에 대한 앎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그는 동굴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의 모상인지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520c). 즉 막 통치를 시작한 철인왕은 처음에는 이상국의 구체적인 상황들 가운데 예컨대 어떤 것이 정의롭고 또 어떤 것이 정의롭지 못한지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일종의 무지 가운데 있다. 하지만 그는 금세 이를 잘 파악하게 되어 무엇이 정의로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무엇이 정의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지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갖게

25) 익명의 심사위원께서는 “통치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즐거움이란 텍스트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인데, 굳이 이런 논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셨다. 지적하신대로 텍스트가 통치 가운데 경험하는 즐거움을 언급하지 않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텍스트가 정의로운 삶의 즐거움이 곧 철학을 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즐거움이라 한정 짓는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필자는 찾을 수 없다. 도리어 올바른 의견으로부터의 즐거움을 소크라테스가 명시적으로 언급한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형상에 대한 앎으로부터의 즐거움을 정의로운 자의 특징적인 즐거움으로 국한시키는 시각이 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또한 동일한 심사위원께서 철학자가 억지로 통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상국을 통치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즐거움’(12쪽)이라는 표현이 『국가』의 맥락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정의로운 삶이 부정의한 삶 보다 더 즐거운 삶이라면, 비록 철학자가 강제로 통치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통치자로서의 삶 역시 정의로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삶이어야 한다.

된다. 올바른 의견이 앎과 함께 혼을 채우는 주요한 것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었다는 점(585b)을 떠올린다면 이는 곧 철인왕은 통치의 과정에서 이상국의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얻어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걸 가리킨다. 그리고 이 즐거움은 이상국을 통치하지 않는 비철학자는 경험할 수 없는 철학자 고유의 즐거움이다.

철인왕이 통치의 과정에서 이상국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겪는 즐거움에는 일종의 무지의 상태가 선행한다. 그는 이 무지의 상태를 지각하고 또 극복하려할 것이기에 이 즐거움은 무지의 고통에 뒤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고통이 선행하지 않고 고통이 뒤따르지도 않으며 고통과 공존하지 않는 즐거움만이 순수하다고 불릴 수 있다면, 철인왕이 이상국을 다스리며 경험하는 전술한 즐거움은 결코 순수한 즐거움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앞서 철학을 하는 즐거움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듯이 순수한 즐거움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속성은 이 즐거움이 고통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 다시 말해 이 즐거움과 연관된 욕구가 온전히 충족된다는 점에 있다. 철인 통치자가 이상국의 어떤 한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 다시 말해 이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획득했다면 최소한 그는 동일한 사태에 대해서 다시는 혼란스러워 할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상국에서 정확히 동일한 상황이 재차 반복되어 일어 날리는 없고, 따라서 그가 정확히 동일한 상황에 대한 혼란을 다시 겪을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철인왕이 이상국의 특정한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면서 겪는 즐거움은 순수하다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철인 통치자가 통치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두 번째 유형의 즐거움은 이상국이 나아가야 할 바로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가짐을 통해 누리는 즐거움이다. 화가가 마치 모델을 보고 그림을 그리듯이 철학자는 자신이 지닌 정의, 좋음, 아름다움 등의 형상에 대한 앎을 참조해 이상국을 다스려 간다(501a-b). 그렇다면 마치 화가가 자신이 모방하고자 하는 모델의 모습<sup>26)</sup>과 현재 자신의 그림의 진행 상황을 번갈아가며 살펴

작업의 다음 단계를 결정하듯이, 철학자 역시 자신이 가진 형상에 대한 앎과 현재 이상국의 상황을 비교하여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철인왕은 이러한 비교의 과정 이전에는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해 무엇이 이상국이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 그는 마침내 이상국의 바른 발전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취하게 되고, 이것은 올바른 의견에 의한 혼의 채움인 이상 즐거움 수밖에 없다.

이상국의 바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얻는데서 경험하는 즐거움은 이 정책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하는 고통을 겪은 후에야 얻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일지 모른다. 게다가 형상과 감각계 사이의 심원한 간극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철인왕은 이상국 역시 감각계에 속하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에서 비롯하는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제약들 때문에 이상적인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서야 이러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혹자는 불지도 모른다.<sup>27)</sup> 하지만 모방을 하는 장인*démourgos*은 형상을 모방해 감각계 내에 무엇이든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진술(596b-d)을 고려할 때 이것은 불필요한 염려로 보인다. 게다가 앞서도 강조했듯이 설혹 이 즐거움이 고통에 뒤따른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이 즐거움을 순수하지 않다고 부를 수는 없다. 도리어 즐거움의 순수함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속성은 이것에 이어서 고통이 일어나지 않는가의 여부다. 이상국에서 완전히 동일한 정치적 상황이 재차 반복되어 발생할리는 없으니 이 즐거움에는 정확히 동일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정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고통은 뒤따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철인왕이 겪는 두 번째 종류의 즐거움 역시 우리는 순수하다고 부를 수 있다.

비철학자들도 당연히 후각적 즐거움과 같은 일부 순수한 즐거움들을

26) 「국가」10권에서 소크라테스는 모든 화가를 모방자로 규정 한다(596e).

27) 여기서 다루는 즐거움에 고통이 선행할 수 있는 두 번째 가능성은 위렌이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 제기한 물음이다.

경험하며 산다. 더 나아가 이들도 자신의 삶을 꾸러가는 과정에서 올바른 의견을 갖고 또 이로부터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다. 이들이 자신의 삶의 행보에서 완전히 동일한 사건을 두 번 겪지는 않을 테니 자기 삶의 현재 처지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갖는 것으로부터 비철학자들이 누리는 이 즐거움 역시 순수하다고 볼릴 수 있다.<sup>28)</sup> 하지만 이들은 철학자만이 겪을 수 있는 상술한 종류의 순수한 즐거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험이 없다. 즉 그들은 형상에 대한 앎을 얻는 즐거움, 이 앎의 기초 하에서만 누릴 수 있는 두 종류의 통치의 즐거움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 즉 비철학자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종류의 순수한 즐거움은 진리와 특수한 관계를 맺는 즐거움이라고 위상 비유의 후반부가 암시하고 있다는 우리의 해석은 이들은 진리인 형상에 대한 앎으로부터 얻어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지적에 의해 승인된다. 이런 맥락에서 소크라테스는 참된 윗부분을 보거나 거기로 옮겨져 본 적이 없는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τοῦ ὄντος τῷ ὄντι* 차게 되지도 않고 순수한 즐거움을 맛보지도 못한다고 단언 한다(585e-586b). 결론적으로 위상 비유의 윗부분은 모든 종류의 순수한 즐거움이 아닌 오직 철학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차게 됨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수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랫부분에서 출발하여 윗부분에 도착하던 중간부분에서 출발하여 윗부분에 도착하던, 바꿔 말해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단계를 거쳐 즐거움을 취하던 평온으로부터 즐거움이 이어지는 상관없이 오직 윗부분에 도착한 자만이 참된 윗부분을 보고 거기로 옮겨져 본 자라 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그는 순수한 즐거움을 경험한 자라고 할 수 있다.<sup>29)</sup>

28) 필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29) 철학자의 즐거움을 이런 다소 느슨한 의미에서 순수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순수한 즐거움을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즐거움에 한정지어 이해할 때 발생하는 여러 난제들, 예컨대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배움의 즐거움은 대체로 고통을 동반한다는 반론(Purshouse (2006), p. 123)이나 후각적 즐거움이 순수한 것이 되는 원리를 본 논증 후반부의 형이상학적 논증이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

그렇다면 왜 이러한 특수한 종류의 순수한 즐거움을 주로 누리는 정의로운 자는 이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부정의한 자 보다 더 행복한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의로운 삶이야 말로 인간 욕구 전체를 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삶이라는 데에서 찾아야만 한다. 혼의 각 부분은 고유의 욕구를 갖는다(580d). 그래서 다양한 욕구를 갖고 또 인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따라서 인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인간은 근본적인 결여의 상태에 놓인 셈이고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마치 물길에 트인 흐름과 같이 어떤 사람의 욕구가 어떤 한 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쪽 욕구가 약해진다는 소크라테스의 언명, 즉 예컨대 한 사람의 욕구들이 학문이나 이와 같은 유로 흘러가면 그의 욕구들은 혼 자체의 즐거움과 관련된 것들이 되고 육신을 통한 즐거움들은 이윽어 버린다는 말(485d6-8)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마치 하나의 물줄기를 여러 물줄기로 나누어 흐르게 하는 다양한 길이 있듯 한 사람의 전체 욕구를 여러 다른 욕구들로 나눌 다채로운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전체 욕구를 다양한 비율로 혼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줄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혹자는 자신의 전체 욕구를 주로 혼의 기계적인 부분으로 배정하여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려 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는 자신의 전체 욕구를 주로 혼의 가장 열등한 부분인 욕구적인 부분으로 배정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자신의 전체 욕구를 가능한 온전히 충족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이를 만족시키려 하는 자, 다시 말해 가장 온전한 욕구의 충족이 가능한 혼의 부분에 자신의 전체 욕구 대부분을 배분하는 자만이 자신의 욕구 전체를 가능한 가장 충실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즉 오직 이성적 부분의 욕구만이 (거의) 온전히 충족 가능한 욕구라는 걸 생각하면, 자신의 전체 욕구를 주로 혼의 이성적인 부분에

---

(Gosling and Taylor (1982), pp. 117-118)등을 손쉽게 비껴 갈 수 있다.

배정하는 철학자만이 인간으로서 지니는 전체 욕구를 충실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바꿔 말해 철학자가 많은 종류의 즐거움 가운데 혼의 이성적 부분의 욕구의 만족에서 비롯되는 특정한 종류의 순수한 즐거움을 주로 누린다는 것은 곧 그가 자신이 인간으로서 갖는 욕구 전체를 비철학자들에 비해 훨씬 더 충실하게 충족시킨다는 걸 뜻한다. 결론적으로 철학자 고유의 즐거움이 순수하다는 것은 그가 인간의 본성적 필요인 욕구의 충족을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있다는 걸 가리키고 이 점에서 그의 삶은 다른 이들의 삶 보다 더 행복하다.

## V. 결론

본고에서 필자는 정의로운 삶이 부정의한 삶 보다 낫다는 『국가』 9권에 실린 소크라테스의 세 번째 증명을 탐구했다. 특별히 이 증명의 요지 중 하나인 철학자의 즐거움이 순수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는데 집중했다. 이 작업을 위해 먼저 필자는 이 논증의 전반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즐거움은 일종의 혼의 평온과 구별되며, 즐거움은 순수한 즐거움과 그렇지 않은 즐거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필자는 본 논증의 전반부에 바로 이어져 등장하는 위상 비유를 자세히 탐구하여 고통이 이에 앞서지도 않고 뒤따르지도 않으며 공존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일부 순수한 즐거움의 특성일 수는 있으나 소크라테스가 본 논증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종류의 순수한 즐거움의 개념을 규정하는 특성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런 견지에서 필자는 본 논증의 후반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철학자의 즐거움은 이와 연관된 욕구가 온전히 충족되었다는 의미에서, 바꿔 말해 고통이 뒤따르지 않는 즐거움이라는 의미에서 순수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서 필자는 철학자가 철학을 하는 와중에 누리는 즐거움 뿐 아니라 이상국을 통치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즐거움 역시 이런 의미에서 순수하다는 걸

보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순수한 즐거움을 누리는 철학자만이 욕구를 온전히 충족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따라서 그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했다.<sup>30)</sup>

---

30) 줄고에 대해 예리한 비평을 해주신 세 분의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주신 지적 및 의견들 가운데 일부는 본고의 주제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여기에서 다 다루지 못했다. 그 모든 것들을 잘 반영한 보다 발전된 후속 연구를 약속드린다.

## 참고문헌

이중환 (2019), 『플라톤 국가 강의』, 파주: 김영사.

플라톤, 박종현 역 (2005), 『국가』, 서울: 서광사.

Annas, J. (1981), *An Introduction to Plato's Republ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obonich, C. (2002), *Plato's Utopia Recast*, Oxford: Clarendon Press.

Butler, J. (1999), "On whether pleasure's esse is percipi: rethinking Republic 583d-585a", *Ancient Philosophy* 19: 285-298.

\_\_\_\_\_ (2004), "Pleasure and the Levels Analogy: An Exegetical Note on Republic 584d-585a", *The Classical Quarterly* 54: 614-618.

Cross, R. C. and Woolzley, A. D. (1964), *Plato's Republic: A Philosophical Commentary*, New York and London: Macmillan

Erginel, M. (2006), "Plato on a Mistake about Pleasure", *Th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44: 447-468.

\_\_\_\_\_ (2011a), "Inconsistency and Ambiguity in Republic IX", *Classics Quarterly* 61: 493-520.

\_\_\_\_\_ (2011b), "Plato on The Psychology of Pleasure and Pain", *Phoenix* 64: 288-314.

Frede, D. (1985), "Rumpelstiltskin's pleasures: true and false pleasures in Plato's Philebus", *Phronesis* 30: 151-180.

\_\_\_\_\_ (1992), "Disintegration and Restoration: Pleasure and Pain in Plato's Philebus", in Richard Kraut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Plato*, pp. 425-46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93), *Plato: Philebus*, Indianapolis: Hackett.

Gibbs, B. (2001), "Pleasure, Pain, and Rhetoric in Republic 9", *Power and Pleasure, Virtues and Vices*(Prudentia supplementary volume), Dirk Baltzly, Dougal Blyth and Harold Tarrant(eds.), pp. 7-34, Auckland: University of Auckland

Gosling, J. C. B. and Taylor, C. C. W. (1982), *The Greeks on Pleasure*, Oxford: Clarendon Press.

Grote, G. (1875), *Plato and other Companions of Sokrates*, London: J. Murray.

- Irwin, T. (1995), *Plato's Eth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amtekar, R. (2004), "What's the Good of Agreeing? Homonoia in Platonic Politics",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26: 131-170.
- Murphy, N. R. (1951), *The Interpretation of Plato's Republ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urshouse, L.(2006), *Plato's Republic*, London: Continuum.
- Russell, D. (2005), *Plato on Pleasure and the Good Lif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lings, Simon, R. (2003), *Platonis Rempublica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C. C. W. (1998), "Platonic Ethics", in Stephen Everson (ed.), *Companions to Ancient Thought 4: Ethics*, pp. 49-7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nelhum, T. (1964), "Pleasure and Falsity",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1: 81-91.
- Rosen, S. (2005), *Plato's Republic: A Stud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Urmson, J. O. (1985), "Pleasure and Falsity: A discussion of J. C. B. Gosling and C. C. W. Taylor, *The Greeks on Pleasure*",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2: 209-221.
- Vasiliou, I. (2008), *Aiming at Virtu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rren, J. (2011), "Socrates and the Patients: Republic IX, 583c-585a", *Phronesis* 56: 113-137.
- \_\_\_\_\_ (2014), *The Pleasures of Reason in Plato, Aristotle, and The Hellenistic Hedonis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lfsdorf, D. (2013a), *Pleasure in Ancient Greek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13b), "Pleasure and Truth in Republic 9", *Classical Quarterly* 63: 110-138.

Abstract

Pure Pleasure of the Philosopher in Plato's *Republic*

Koo, Kyo-Su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third proof of the superiority of the just life to the unjust life given by Plato's *Republic* IX, which argues that only the just person, i.e. the philosopher, enjoys the kind of pleasure which is true and pure and thus he is happier than the unjust(583b-588a). In particular, this paper examines (a) what kind of pleasure the pure pleasure of the philosopher is and (b) why he is superior to the unjust person because of his enjoyment of this kind of pleasure. For this examination, first, by inquiring into 583b-584, I claim that pleasure is distinguished from a sort of calm of the soul, i.e. the cessation of pain, and that pleasure is bisected into pure pleasure and relief from, i.e. the relief from pain. I then scrutinize the so-called topological analogy(584c-585a) and argue that, although some sorts of pure pleasure are neither preceded nor followed by pain, being neither preceded nor followed by pain is not a definitive feature of pure pleasure. I finally investigate(585a-588a) and claim that the pleasure of the philosopher is pure in the sense that it is not followed by necessary pain, which means that this pleasure consists in an entire satisfaction of its related desire. To prove this claim, I show that every kind of pleasure the philosopher enjoys while doing philosophy and ruling the ideal-city is not followed by necessary pain. Therefore, I conclude that the philosopher who mainly enjoys pure kinds of pleasure is happier than other kinds of people because he can best meet a basic human need, i.e. satisfaction of one's overall desire.

**【Keywords】** Plato, *Republic*, Philosopher, Pleasure, Pure Pleasure

논문 투고일: 2020. 03. 19

심사 완료일: 2019. 04. 05

게재 확정일: 2019. 04. 05